

동지가 금속노조다!

대전충북지부

8호

발행인 : 김정태
발행일 : 2020년 8월 24일(월요일)
발행처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코로나 위기 떠넘기지 마라!



노동자에게 집중되는 코로나 피해!

지부가 19일(수) 충청도청 앞에서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열고 '해고금지 선언'을 촉구했다. 많은 기업들이 코로나 위기를 빌미로 강제 연차 사용, 임금삭감, 무급휴직, 희망퇴직, 해고를 자행하고 있다. 실업급여는 매달 역대 최고액을 기록하며 해고가 심각한 상황임을 알려주고 있다. 경제위기가 찾아오면 언제나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 이런 상황에 대해 지자체 차원에서 면밀하게 실태를 조사하고 실효성있는 해고금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해고금지 선언하라!

코로나 위기가 본격화된 이후 많은 지자체들이 해고금지 선언에 동참하고 있다. 4월 21일 전주시를 시작으로 양주시, 서울시 구로구, 광명시 등 지자체들의 해고금지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아직 광역 시도 단위 중에는 해고금지를 선언한 곳이 없다. 충청북도가 광역 시도 중 최초로 해고금지를 선언하며 코로나 위기 극복의 핵심은 노동자들의 삶을 안정화 하는 것이라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 지부는 충청북도와 면담을 통해 해고금지 선언의 구체적인 내용 마련을 위해 논의를 계속해서 이어가기로 했다.

충주에 새 식구! APTIV지회!

충주에 새로운 지회가 설립됐다. 현대모비스충주지회와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한 APTIV지회이다. 자동차용 연속단자 커넥터, 케이블 등을 생산하는 회사로 충주와 울산에 공장을 두고 있다.

APTIV자본은 계약직을 대거 고용하면서 고용불안을 가중시키고 현장 노동자들을 최저임금으로 부러먹기 바빴다. 현장에 한국노총 소속 노동조합이 있지만, 노조로서 제 역할을 못한다고 판단해 별도의 현 지회장을 중심으로 별도의 기업노조를 설립했고 총회를 통해 금속노조로 전환을 결의했다.

지부와 3개월간의 준비모임을 거쳐 8월 17일 설립총회를 열고 금속노조 APTIV지회로 새롭게 출범했다. APTIV 노동자들이 권리를 찾고, 충주지역에 민주노조의 바람이 더 거세게 불 수 있도록 연대하자.

* 주요 일정 *

- **중앙교섭 및 중앙집행위**
- 8/25(화) 14:00, 금속노조
- **현대차 엄벌 유성 기자회견**
- 8/25(화) 14:00, 대전고법 앞
- **전태일3법 입법발의 대전 실천단 결의대회**
- 8/26(수) 15:00, 민주노총 대전본부
- **충북 노동자권리찾기 선전전**
- 8/27(목) 06:30, 청주 사창사거리